

# 자연보호의 개념과 가치에 관한 연구

우형택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환경과학과

## 1. 서론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는 현재까지 환경문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시각과 인식이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문제를 중심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협소하다는 점에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집중적으로 강조되어 환경문제는 곧 환경오염이라는 등식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매우 강하고, 개발과 성장위주의 국토개발정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훼손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어 상대적으로 등한시되어 온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80년 이후의 환경보호의 국제적 동향과 노력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21세기의 주요 실현과제로써 전 지구적 노력과 국가간 협력, 그리고 각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엇보다 부족한 점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에 있어서 자연환경의 보호와 관리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상,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중요한 생태적 과정과 생명 부양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핵심과제로 주장되어 왔다(IUCN, 1980; McNeely and Miller, 1984; WCED, 1987).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과 자연보호의 개념을 비교분석 고찰하여 자연보호의 현대적 의미와 역할을 명확히 설명하고, 자연보호의 가치와 당위성을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 고찰하여 효과적인 자연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자연보호정책과 운동의 기본 이념과 가치를 제시하는데 있다.

## 2.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 2.1 자연보호(Conservation)의 개념과 발전과정

자연보호의 전통적 개념은 지속가능한 생산과 다목적 이용의 원칙에 따라 자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된다(Miller, 1990: 39, 41). 지속가능한 생산이란 산림과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을 자연자원의 재생산 범위 내에서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파괴와 훼손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목적 이용이란 자연 환경과 자원을 어떤 특정의 단일 목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경적 잠재력과 수용능력에 따라서 적합한 개발과 이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속적 생산과 다목적 이용의 두 가지 원칙은 과학적 지식과 평가를 토대로 한 과학적 관리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개념이며, 또한 과학적 관리란 자연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서 정치적 압력과 의사결정을 배제한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오늘날 자연보호의 개념은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중요 건축물, 경관, 야생동식물, 깨끗한 공기와 물, 아름다운 거리 등과 같은 환경의 특징적 요소들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것이 포함되며, 둘째,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의 대기 및 수질오염을 규제하고 환경을 관리하는 것 또한 자연보호의 일부분이며, 셋째, 자연보호는 자연환경과 자원의 지속적 생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Green, 1985). 사실상, 이 세 번째 개념은 자연보호의 전통적 개념의 두 가지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환경의 보호, 변화, 개발을 인식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연환경과 자원이 현명하게 개발되고 이용된다면 양호한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으며, 위의 다른 두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 2.2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개념과 발전과정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대두된 새로운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 개념은 1970년대 초부터 상당 기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어 온 개념이다.

1970년대 초반까지 환경과 개발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었고, 개발이나 보호냐는 양자 택일의 관점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대립적 관점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를 전후한 환경관련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을 통하여 환경과 개발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기 시작하였고, 전통적인 경제개발과 성장의 관점에 수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개발의 개념들이 제시되었다. 즉, “생태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등으로 표현된 새로운 개발 개념들이 기존의 환경과 개발의 경쟁관계를 상호 밀접하게 의존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재정립하기 시작하였다(코스모스피어, 1993: 298).

이후, 198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의 본격적인 국제적 논의를 촉진하고 강조하는 분수령이 된 것은 1980년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세계자연보호연합)이 발간한 세계자연보호전략(WCS: World Conservation Strategy)이었다. IUCN은 이 전략에서 환경과 개발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자연보호와 개발의 조화, 조정, 통합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입을 주장함과 동시에 생

물적 다양성의 보호, 생태적 과정과 생명부양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 전략과 국가 및 지역의 전략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 할 것을 제시하였다(IUCN, 1980).

이어 유엔에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진 필요성에 따라 1983년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세계환경개발위원회)를 설립하고 당시 노르웨이 수상 Brundtland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장기적 환경전략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4년후 1987년 소위 Brundtland Report라 불리는 “Our Common Future(인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였고, 환경과 개발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개발”로 정의하고 있다(WCED, 1987: 43). 이 개념 속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형평성의 원칙이며 이는 환경자원의 사용에 대한 권리와 기회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동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적 격차를 줄여 국가간 경제적 형평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포함한다. 둘째는 한계성의 원칙이다. 한계성이란 우리 인간의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환경수용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현재의 기술과 사회구조의 상태가 계속 유지될 수 없는 한계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측면에서만 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생산적, 행정적, 국제적 체제의 측면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경제, 사회개발의 목표는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의 기본목표는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추진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WCED, 1987).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는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유엔환경개발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회의의 주제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었다. ESSD는 1987년 Brundtland 보고서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과 내용을 수용, 반영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해서 작성된 Agenda 21에서는 사회적·경제적 요소, 자원의 보호와 관리, 사회단체의 역할 강화, 실시수단의 여러 측면에서 개별 분야별로 목표, 행동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포괄적, 종합적 개념을 반영하였다.

### 2.3 비교고찰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두 개념에는 많은 공통점과 밀접한 관련성

이 있다. 두 개념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환경과 개발의 조화, 즉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으로 동일하며, 이는 환경이나 개발이나는 두 개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상호 대립주의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들 사이의 균형있는 조화점을 추구하는 공존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환경과 개발의 조화는 자원의 개발과 이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수용능력의 한계범위 내에서 현명한 개발을 추진하여 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 내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내용들은 자연보호의 다목적 이용의 원칙과 지속적 생산의 원칙,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형평성의 원칙과 한계성의 원칙에서 분명히 찾아 볼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의 대원칙을 확보하는데 기본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자연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발전과정과 핵심내용의 관점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최근 새롭게 대두된 신개념이라기 보다 자연보호의 핵심개념에 그 뿌리를 두고, 오늘날의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확대발전된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두 개념의 차이점은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데 있어서 자연보호는 과학적 지식과 기법을 도입한 환경계획관리를 통해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고 있는데 비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은 그러한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지장이 되는 정치, 경제, 사회, 행정체제 등의 변화까지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개발은 자연보호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상위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보호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써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부분으로써 그 역할과 지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장래의 환경정책 수립과 시행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 3. 자연보호의 가치

#### 3.1 윤리적 가치

자연의 보호자 또는 보관인으로써의 인간의 관리책임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의무나 윤리적 의무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다.

인간은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잘 보살피고 가꾸어야 하는 종교적 책임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신학적 측면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인간과 자연은 다함께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올바르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비단,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에서도 인간과 자연의 합일성과 자연을 자비의 대상으로 강조하며 이러한 전통적 가르침은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써 인간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자연의 이치와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적 관계를 수립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돌보고 가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자연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분으로써 자연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오히려 자연을 보호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지닌다는 견해는 자연보호운동을 추구하는 일반적 동기가 되어 왔고 자연보호의 핵심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접근방법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생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생태중심주의적 세계관으로 발전하였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본생태학(Deep Ecology)과 생태페미니즘(Ecofeminism)이다.

자연보호에 대한 종교적 또는 윤리적 가치는 인간과 자연의 새로운 관계, 즉 상호의존적, 상호협력적, 공동체적 관계의 정립을 요청하고 새로운 환경운동의 동기부여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윤리적 요청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중심적, 물질중심적 가치와 태도로부터 생태중심적 가치와 태도로의 과감한 변화를 요구하고 자연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 3.2 심미적, 레크리에이션적 가치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심미적, 레크리에이션적 혜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자연미, 경이, 기쁨,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자원이다.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형태와 다양한 색채, 가을의 단풍, 야생식물의 냄새, 새와 동물의 움직임, 자연의 소리 등 인간은 모든 감각을 통하여 자연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다. 자연을 찾고 느끼고 직접 경험함으로써 인간은 육체를 단련시킬 수 있음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얻어 몸과 마음을 재창조 할 수 있다(自然環境復元研究會, 1994). 또한, 자연경관과 야생동식물은 등산, 사냥, 낚시, 탐사, 휴양 등의 형태로 다양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제공하고 중요한 관광자원이 된다.

자연환경이 지니는 심미적, 레크리에이션적 가치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자연환경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급증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환경부, 1995). 따라서, 21세기의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 급증과 선호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자연환경을 확보하고 양호한 자연생태계를 유지, 관리, 창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3.3 과학적, 문화적 가치

자연환경은 과학적 탐구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은 과학적 탐구의 대상이 된다. 자연환경의 구성요소인 지형, 지질, 토양, 산림, 강, 하천, 호수 등은 그 자체가 많은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야생동식물은 또한 생물학자, 식물학자, 생태학자 등의 직접적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모든

생물종들은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생물이 탄생되고 진화되어 왔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얻는데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그들은 장래의 진화과정에 있어서 거대한 유전자 풀을 형성하고 유전공학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야생동식물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환경지표가 된다.

어떤 국가나 지역의 자연의 구조와 구성요소 및 생태는 오랜 기간의 인간과 자연의 복합적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토지이용 역사의 총체적 결과물이다. 자연을 연구하고 이해하면 인류역사를 통해서 그 국가나 지역에서의 정치, 경제, 사회 활동의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떠한 환경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자연 생태계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중요한 국가 또는 지역유산이라는 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 3.4 경제적, 물질적 가치

야생동식물이 제공하는 경제적 가치는 정확한 화폐단위로 계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그 막대한 경제성은 어렵지 않게 추정해 볼 수 있다. 농업, 임업, 어업의 자원을 생각해 보면 야생동식물의 자연자원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오늘날의 농업은 비록 야생동식물의 직접적 채취는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날 식량작물의 90%는 야생 열대식물을 농업화한 것이며 이는 매년 약3조달러에 해당하는 세계식량시장의 판매량을 지지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Miller, 1997: 431). 많은 농학자와 유전공학자들은 보다 높은 식량생산성과 질병과 기후에 저항력이 강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까지 평가되지 못한 많은 야생식물종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임업과 어업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상당 부분 야생동식물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야생동식물의 생물자원은 의약품의 제조원료로써도 인간에게 많은 물질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인간이 사용하는 의약품의 네 가지 중 하나는 식물종의 원료에 기원을 두고 있고 야생식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상업적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노먼 마이어스, 줄리언 사이먼, 1994: 98). 따라서, 야생식물종의 멸종으로 인한 새로운 식물원료 약제제조 가능성의 상실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 할 것이 분명하다.

#### 3.5 생태적, 생명부양환경적 가치

환경문제와 환경운동을 논함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필수적인 내용은 생태학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핵심 교훈이다. 생태학이란 자연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으로(Odum, 1992; 1993)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무수한 생물들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상호의존 관계에서 환경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 복잡한 과정에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그 균형이 깨어지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는 것이 주된 이론이다. 따라서, 자연의 복잡한 과정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생태적 균형이 인간에 의해서 깨뜨려지면 인간은 자연의 무료 서비스와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을 뿐아니라 그 영향이 결국 인간으로 돌아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생존까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류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관점에서 Odum(1992)은 생명부양환경(Life-Support Environmen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을 도시환경, 자연환경, 반자연환경으로 나누어 도시의 생명유지에 필요한 모든 자원은 자연환경과 반자연환경으로부터 제공되며 또한 도시에서 발생된 모든 오염물질과 폐기물은 이 두 지역에서 처리되므로 소면적의 도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면적의 자연 및 반자연지역의 확보가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자연환경은 인간의 생명부양에 필수적 요소이며 생명유지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 유지,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3.6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실현의 가치

자연보호의 핵심적 개념은 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과 합리적 이용이다. 이러한 핵심적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에 비하여 어떤 개인이나 기업에 가져다주는 물질적 이해관계가 적고 보다 공익적 차원에서 추구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의 지속적 생산과 합리적 이용은 지역민, 국민, 그리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평한 자원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자원이용에 있어서 형평성을 추구한다. 자연보호를 추진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다양한 자연보호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고임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직업보다 저임금과 저기술 중심의 노동집약적 직업을 많이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따라서, 자연보호는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을 줄이는 효과를 지닌다. 더불어, 지역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자연보호시책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결과적으로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따라서, 자연보호는 사회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고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회정의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효성 있는 자연보호가 실시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실행의 지속된 발전과 향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연보호의 실현과 강화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법, 그리고 행정 및 예산을 반드시 필요로 함으로 정치적 의사결정을 포함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의견수렴은 민주주의적 과정을 통해서 도입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과 시행에 있어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참여를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주주의적 제도와 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반면, 자연보호의 추구하고 운동은 민주주의적 실행을 지속적으로 강

화시키고 발전시킨다. 따라서, 자연보호의 추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실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며 추진과정을 통해서 민주주의적 실행을 강화한다.

### 3.7 고찰

자연보호의 윤리적 가치는 우리로 하여금 자연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자연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사고의 변혁이 요구된다. 이러한 세계관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따라서 자연보호의 윤리적 가치는 환경교육과 생활양식의 변화와 실천분야, 그리고 자연보호를 위한 민간환경운동의 기본이념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어떤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개발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점에서는 자연지역의 보다 바람직한 이용을 유도하고 자연자원의 파괴와 훼손 없이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적정이용을 위해서는 자연의 심미적, 레크리에이션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상당한 면적의 자연지역을 확보하고 보호해야 할 경우는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과 생태적, 생명부양환경적 가치의 강조와 더불어 그 지역내의 야생동식물의 과학적 가치와 경제적, 물질적 가치도 함께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생태적, 생명부양환경적 가치는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자연환경정책과 계획의 수립시 기본이념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특히 자연보호가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정의나 민주주의 실현의 가치와 연계될 때 보다 강력한 자연보호정책과 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와 추진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노먼 마이어스, 줄리언 사이먼, 윤상욱 옮김, 1994, 개발이나, 보전이나?: 환경학자와 경제학자의 환경논쟁, 따님, 14-229.
- 코스모스피어, 1993, 지구환경총람, 코스모스피어, 316pp.
- 환경부, 1995b, 전국 그린 네트워크화 구상, 3-20.
- Green, B., 1985, Countryside conservation, George Allen & Unwin, 2-25.
-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1980, World conservation strategy: living resource conserv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UCN/UNEP /WWF, Gland.
- McNeely, J. A. and K. R. Miller(Eds), 1984,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the role of protected areas in sustaining society,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776pp.
- Miller, G. T., 1990, Living in the environment, Wadsworth Publishing

- Company, 35-45.
- Miller, G. T., 1997, Environmental Science,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430-458.
- Odum, E. P., 이도원 옮김, 1992, 생태학, 동화기술, 23-289.
- Odum, E. P., 정재춘 옮김, 1993, 기초 생태학, 자유 아카데미, 1-494.
- WCE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University Press, 43-65.
- 自然環境復元研究會, 1994, 바이오-프: 復元と創造, 信山社, 東京.